

##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통한 '글로벌 기업 도약' 포부 밝혀

올림푸스한국(주), 신사옥 준공기념 기자간담회 개최

올림푸스한국(주) 대표 · 방일석, [www.olympus.co.kr](http://www.olympus.co.kr)이 법인 설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4월14일 서울 삼성동에 신사옥 '올림푸스 타워(Olympus Tower)'를 준공하고 이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에서 '비전 2020'을 선포했다. 방일석 대표는 광학 90년 기술을 기반으로 10년후 디지털카메라 시장에서 리딩 브랜드 입지를 확고히 가져가고 신개념의 카메라 문화의 트렌드를 창출할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취재 | 박지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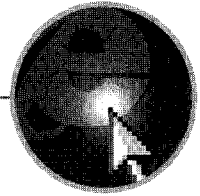


▶ 올림푸스한국의 방일석 대표

지난 4월14일 서울 삼성동에 있는 신사옥 '올림푸스타워' 준공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방일석 사장은 "올림푸스한국은 한국경제와 상생하는 가운데 문화적으로도 공헌할 수 있는 외국계 기업이 될 것"이라며 "철저한 현지화를 발판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발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올림푸스한국은 '비전 2020'을 선포하며 향후 10년비전과 중장기 경영목표를 발표하고, 아울러 문화콘텐츠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공헌계획도 밝혔다.

방 사장은 "10년 전 한국에 지사를 설립할 때 조그만 사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며 "이는 철저한 현지화에 이어 한국발 비즈니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두보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2006년 토지를 매입하고 2년



5개월에 걸쳐 신사옥을 건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신사옥 올림푸스타워는 A동 12층, B동 6층 등 총 2동의 빌딩으로 구성되어 있다. A동 사무실 건물의 지하 1, 2층에는 클래식 전용 공연장과 아트 갤러리 등 복합문화 공간까지 갖추고 있다. 방 사장은 "그동안 지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은 한국 시장만의 특수성에 맞추어 스피드한 의사결정 속에 독립경영을 바탕으로 현지화에 힘썼기 때문"이라며 "한국에서 거둔 수익중 일본 본사에 배당한 비율은 2.7%밖에 되지 않으며 대부분 한국에 재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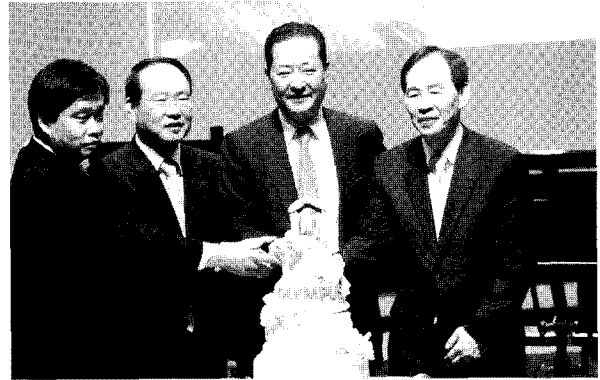
마이크로포서드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DSLR, 방수카메라 기술, 하이엔드급의 세계최초 광학 30배줌 등 세계적인 디지털광학기술을 새롭게 선보여온 올림푸스는 새로운 시장변화가 대두되는 디지털카메라 시장에서 리딩 브랜드 입지를 확고히 가져가고 계속해서 신개념의 카메라 문화 트렌드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광학기술을 통한 좀 더 쉽고 편리한 사진 문화를 멀티 소셜 네트워크(Multi-Social Network) 환경으로 구현함으로써 모바일 및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도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자회사 비첸을 통해서도 한국발 비즈니스를 실현해 세계로 뻗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 대표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국내 기업을 발굴해 M&A 및 기술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온라인토탈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소프트웨어 산업군을 육성시키고 영산사업, 의료사업과 연계한 비즈니스로 수익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방 사장은 이번 신사옥 건립과 함께 문화 활동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공헌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신사옥에 복합문화공간을 설치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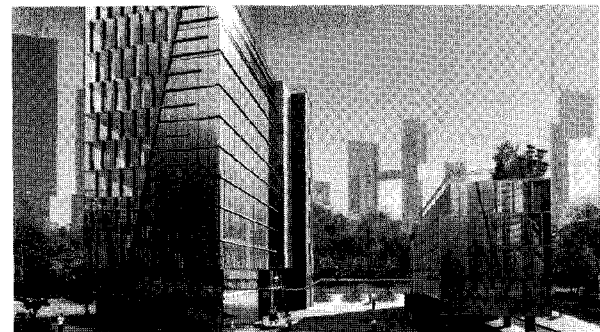
방일석 사장은 "영상사업 부문에선 하이브리드 DSLR인 '펜'의 인기가 높아 전체 DSLR 카메라 시장에서 1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 부문



▶ 신사옥 준공 기념 케익커팅식 광경



▶ 올림푸스타워 지하에 마련된 클래식 전용 공연장에서는 뮤지컬 모차르트팀의 연주회가 열렸다.



▶ 올림푸스타워는 A동 12층, B동 6층 등 총 2동의 빌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 경우 90%가 넘는 점유율로 후발주자와 상당한 격차가 있다"며 "꾸준한 투자와 마케팅 활동을 통해 이 점유율을 지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림푸스한국은 올해 매출목표를 2000억원, 자회사를 합치면 2500억원 가량으로 잡고 새로운 10년 100년을 향한 힘찬 행보에 나섰다.